

## 길과 집의 만남

### Between Street and House

대담자 /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설계자 / 유원재(다건축)  
Min Hyun-Sik & Yoo Won-Jai  
일 시 / 1997. 7. 23(수) 17:00  
장 소 / 다건축 회의실



민현식\_\_\_\_\_이 집을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항상 부러운 유원재씨의 세련된 감각이 물씬 풍깁니다. 이 집을 고풍리 삼아 우선 '공동주택'에 대한 유원재씨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이 집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부딪친 벽이 무엇이었는가 등을 듣고 싶습니다.

유원재\_\_\_\_\_공동주택은 비싼 땅값을 서로 나누어 부담하고, 각 집이 개별관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나타난 수단이지만 사람들은 주거의 개별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만족하고자 한다 봅니다. 이런 양면성에서 보면 공동주거의 개별영역과 공동부분을 잘 연계시키면 모여 산다는 덜 심심함과 주거의 관리효율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현실의 벽은 남산 경관을 위해 순환도로에서 -1.5m 고도제한을 지키며, 설계 요구사항(특히 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순환로에서 집이 안보인다는 것이 건축가로서 아쉬웠습니다.

민현식\_\_\_\_\_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또는 같이 산다는 의미)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오히려

익면성이 더 강조되기도 합니다. 이 집에서 그러한 선택이 어떻게 행하여 졌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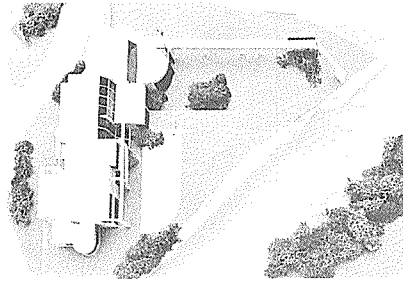
유원재\_\_\_\_\_이 집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외국 직원을 위주로 마련되었기에 동호인 공동주택과 비슷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00호'로 불리는 대신 '누구네 집'이라 불려질 수 있는 10유닛 규모이어서 각 세대의 개별성을 주었고 계단홀에서 각 세대에 이르는 출입행로도 각기 다른 장소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민현식\_\_\_\_\_이러한 정신이 가장 뚜렷이 구현된 곳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도시 길의 연장이기도 하고, 또 집의 연장이기도 해서 도시와 집을 연계시켜 주기도 하고, 또 이 "수직의 길"에서 입주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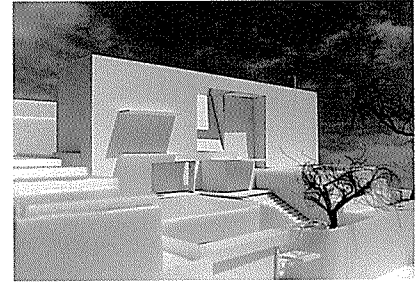
유원재\_\_\_\_\_얘기대로 설계자의 의도가 전달되어질 수 있다면 즐거운 일입니다. 설계 요구사항을 수수께끼 풀 듯이 해결시키고 남은 부분이 계단홀입니다. 이 부분은 건



H. 빌라 모형



구기동 M주택



성북동 H주택

축가에 일임을 한 건축주의 배려로 설계작업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곳입니다. 마치 협주곡의 카덴차(Cadenza: 독주자 맘대로 연주할 수 있는 장식적 악구)와 같습니다. 한지붕 밑에서 산다는 연대감과 자부심을 나타내려 했지요. 집과 도시를 연결해 주는 매개공간인 이 계단홀은 시선의 변화가ダイ나믹하게 변화되는, 수직 이동중에 즐길 수 있는 깊고 다양한 오프닝을 두어 연출되었습니다. 이 다양함은 실은 서로 다른 유닛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좁고 폐쇄적 공간(엘리베이터)에서 어설프게 마주치는 이웃보다는 밝고 적극적인 계단홀에서 한지붕 식구들이 자연스레 말을 걸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낀다 봅니다. 이 계단실은 길 건너 북측으로 집보다 더 높은 축대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삭막해진 길거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구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아간에 거리의 풍경을 조성하는데 각 건물의 책임이 있다 봅니다. 예로 구반포의 도로 양쪽의 상가가 있는 곳은 생기로우나, 신반포 쪽으로 오면서는 어두컴컴한 아파트 담장으로 거리가 죽어 있어 아간보행시 안전에도 위험스런 죽은 도시같은 어두운 모습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집이 어두운 거리를 위해 계단실을 커튼월로 개방하고, 입주자들은 그곳을 오르내리는 연출을 하여 뒷골목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민현식 \_\_\_\_\_ 지난 3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의 아파트 평면 형식이 거의 고찰화되어 간 듯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 집에서 시도한 각 유닛트 평면이 "우리공동주택"에 전일보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될지요.

유원재 \_\_\_\_\_ 유닛트 평면은 4가지 타입(가족형, 커플형, 합숙형, 독신형)으로 10세대를 꿰 맞추다 초우기로 끝낸 셈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새로운 것은 합숙형 유닛트인데 욕실과 옷보관실이 각각 독립된 침실 2개에 거실, 식당,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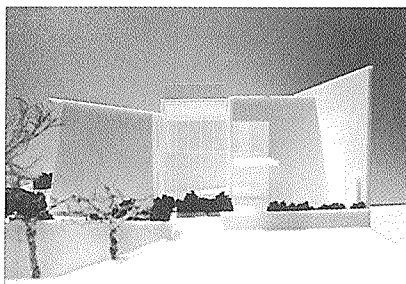
등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각 방의 독립성과 공동사용의 넓은 거실, 식당 등을 얻을 수 있지요. 이런 형태는 한 유닛트를 공동 사용하여 얻는 이점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 봅니다.

민현식 \_\_\_\_\_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좀더 다양한 유닛트프렌을 실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즉 듀를랙스, 스킵 후로마, 또는 최상층, 측면, 지층 등에 여러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 집에서 이러한 다양한 유닛트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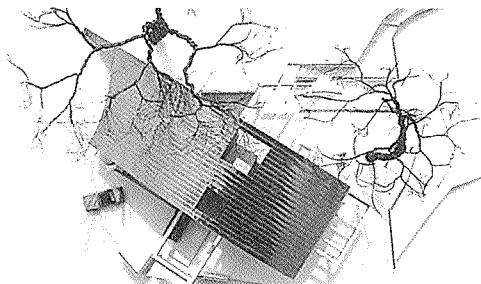
유원재 \_\_\_\_\_ 앞서 얘기한대로 남산 순환도로 레벨 -1.5m가 이집의 단면 상한선이 둥근 지붕선이 됐습니다. 그 단면에서 최대 용적을 날다보니 자연스레 스킵후로아를 적용하였고 최상층의 천정선도 곡면으로 처리했습니다. 초기에는 듀를랙스를 도입해 보려하였으나 우리의 고정관념이 연속된 평면주거형식을 더 선호하더군요.

민현식 \_\_\_\_\_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떤 뜻으로 세밀한 맞춤형 생활의 디자인입니다. 어떤 생활을 그에게 전해 주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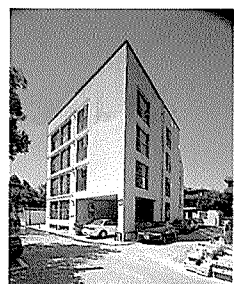
유원재 \_\_\_\_\_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설계의 최후의 숨결이자 연출입니다. 허나 건축가의 책임인지, 사회 통념상 마지막 연출은 건축가에 의해 대개 행해지질 못합니다. 이 집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건축의 의도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건축주의 분리된 발주체제로 인하여 초점을 하나로 맞추지는 못했나 봅니다. 다른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건축설계의 횡방꾼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전 시간 흐름속에서 생활자체가 복잡해지므로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미니멀 디자인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절제된 실내 분위기를 생활의 연출로 채워나가기야 하지요. 그리고 건축과 인



한남동 J주택



과천 주말주택



동교동 원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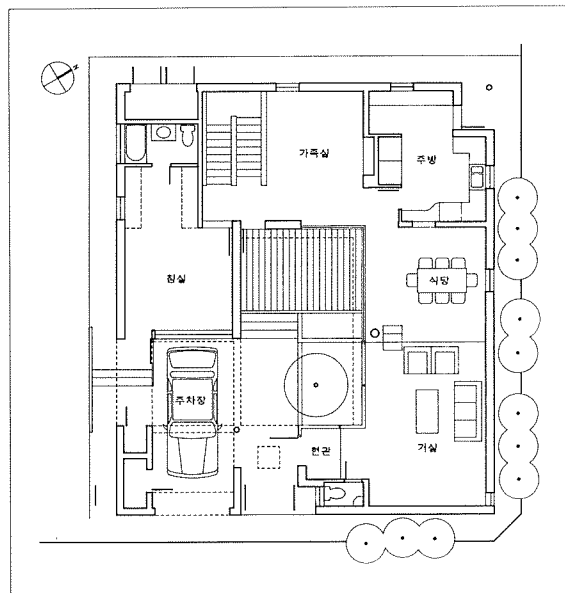
테리어 설계가 같은 개념 설정에서 연속성을 가져야 하지만 서로의 견해차로 그 의도가 불분명해지기도 합니다.

민현식 \_\_\_\_\_ 전망이 좋습니다. 상층부의 전망은 정말 극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전망이 나빠지는 저층부에서 이러한을 다른 무엇으로 보충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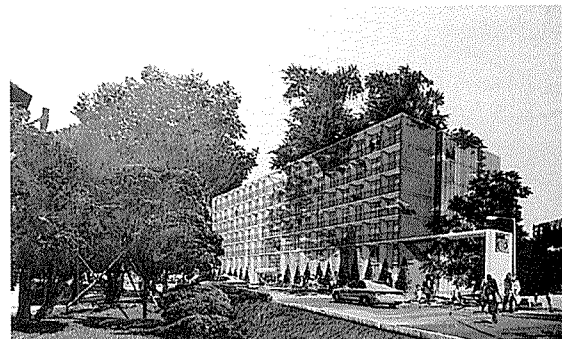
유원재 \_\_\_\_\_ 남서쪽의 서울을 내다 볼 수 있는 전망은 이집 설계의 주요한 요소였습니다. 시간을 담을 수 있는 움직이는 그림을 액자화하려고 했습니다. 저층부는 전망이 좁아지나 남서쪽 사면을 이용해 짜투리 개별정원을 두어 접지성을 높혀 보상하려 했습니다.

민현식 \_\_\_\_\_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 고유의 생활방식"이 있다면 또는 이 집에서 제안하는 "생활"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합니까?

유원재 \_\_\_\_\_ 이 집에서 우리 고유의 생활방식을 직설적으로는 찾을 수 없다 봅니다. 모든 고유 생활의 정신은 우리 내면세계에 깔려 있지만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모두 많이 변화되었지요. 아마 식생활이 그중 가장 많이 전래되었나 봅니다. 예를 들면 김치와 된장 같은 것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고리와 두루마기는 우리의 상징적 의복이지만 실생활과는 멀어지고 있듯이 주생활의 고유 패턴도 형식이 다닌 우리의 사고체계에 흡수되어 있는 의식에 의해 이어진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주거에서 전통 주거형태인 'ㄷ'자 집의 마당을 은유(metaphor)화 해서 계단홀을 만들었습니다. 몇 가구가 함께 세들어 살던 'ㄷ'자 집의 조그만 마당에서는 생활의 애환들이 펼쳐지는 무대였지요.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할까요. 이런 세상사는 얘기 거리들이 남산골 뒷골목 유리박스 안에서 어떻게 피어날까 궁금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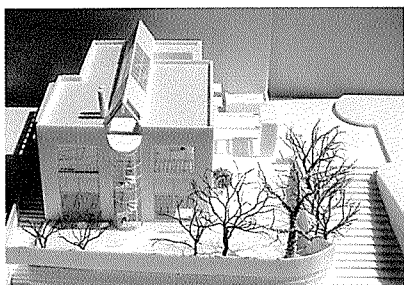
과천 K주택



서울대 의대가숙사 현상응모안



합정동 L주택



한남동 J주택 계획안



곤지암 주택 계획안



합정동 L주택